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4-6호 (2024.03.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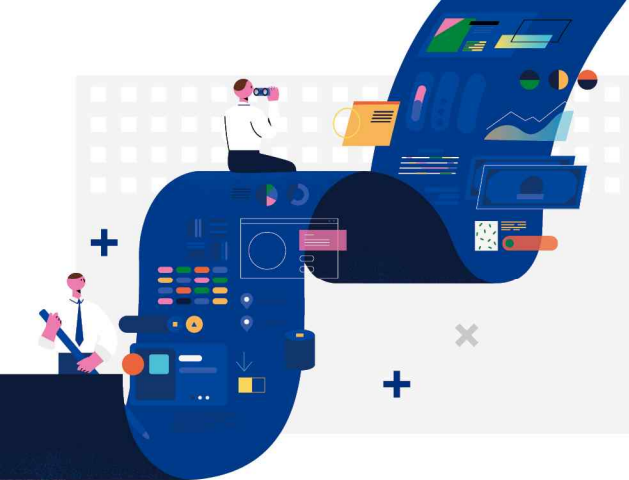
■ 이 슈

(산업) 바이오의약 소재·부품·장비
산업 및 정책 현황

■ 주요 산업 현황

(서비스) 서비스산업 시장 동향

■ 국내 정책동향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4-6호 (2024.03.29)

Cotents

I. 이 슈

(산업) 바이오의약 소재·부품·장비 산업 및 정책 현황 1

II. 주요 산업 현황

(서비스) 서비스산업 시장 동향 7

(부록) 주요 산업 수출입지표 10

III. 국내 정책동향

(산업) 해외 진출 소상공인 돕는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접수 시작 11

(산업) '소규모 어가 직불금',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 11

(금융) 금융위,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시행 12

(문화) 글로벌 축제 공모를 통해 선정된 3개 축제, 3년간 전폭적 지원 12

(교육) 교육부,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 신규 선정을 위한 공모 접수 13

(교통) 동남아 항공교통흐름관리 협력체 가입으로 하늘길 이용 편의 개선 전망13

(금융) 기후위기 대응 위해 민관 합심을 통해 다방면 금융지원 시행 14

(산업) 중기부, '소담스퀘어' 추가 구축을 위한 수행기관 모집 14

연구진

최태림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민규량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상민경 인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 연구원

산업 > 바이오의약 소재·부품·장비 산업 및 정책 현황



#소재·부품·장비산업 #바이오의약품 #지역산업 현황 #국내외 정책

- 생명공학기술(Biotechnology)의 발달과 함께 고령화, 희귀·난치 질환에 대한 치료 가능성을 연 ‘바이오의약산업(Biopharmaceutical Industry)’이 미래 국가성장동력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바이오의약산업에 활용되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확대
 - 바이오의약산업이란 생명공학기술을 기반으로 사람이나 다른 생물체에서 유래된 원료 또는 재료를 활용해 바이오의약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국내에서는 ‘바이오산업 분류체계(KS J 1009)’¹⁾에 따라 구분
 - 바이오의약 제품에는 △바이오항생제 △바이오저분자량의약품 △백신 △호르몬제 △치료용항체 및 사이토카인제제 △혈액제제 △세포기반치료제 △유전자약품 △바이오진단 및 소재 의약품 등을 포함한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제제가 포함²⁾
 - 바이오의약산업은 경제·산업적 파급력이 크고 성장성이 높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글로벌 바이오의약산업 시장은 각국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급속히 성장³⁾
 - ‘바이오의약 소부장’은 바이오의약산업의 연구·개발, 생산, 제조, 서비스 단계에 활용되는 모든 소재·부품·장비를 총칭하는 말로, 바이오의약산업 성장 및 발전의 뿌리가 되는 기초 제조업을 의미
 - 바이오의약 제품생산의 밸류체인은 크게 ‘개발(배양)–제조(회수·수확·정제·DS)–생산(완제)’의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각 단계에서 활용되는 △바이오패터 △배지 △혈청 및 시약 △원심분리기 △TOC 바이알 △흡착제(레진) △무균멸균기 △분리막 이용 정제기기 △멤브레인 필터 등이 바이오의약 소부장에 해당
 - 첨단기술을 통해 신약개발 기간이 단축되고 노인성 질환이나 희귀·난치 질환의 치료를 위한 바이오의약 제품의 글로벌 수요 증가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의약 시장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생산공정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바이오의약 소부장 산업의 시장 역시 동반성장
 - 바이오의약산업의 경우 선진 국가 및 선도기업의 기술 점유로 인해 국내 산업의 해외의존도가 매우 높는데, △2019년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제한 △코로나19, 무역 갈등 등 글로벌 공급망 위기 △선진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 등의 국제 무역환경 변화를 겪으면서 바이오의약 소부장 국산화(자국화)에 대한 필요성이 확대

1) 2008년 1월 국가기술표준원이 바이오산업을 8개의 대분류로 코드화하였으며, 바이오산업 저변 확대에 따라 2016년 12월 개정하여 현재는 △바이오의약 △바이오 화학·에너지 △바이오식품 △바이오 환경 △바이오 의료기기 △바이오 장비 및 기기 △바이오 자원 △바이오 서비스 등 8개 대분류 및 51개 중분류로 구분.

2) 관계 법률 및 규정 :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제2조제9호,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제2조제1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등.

3) 글로벌 리서치 전문기관인 Statista에 따르면 전 세계 바이오의약품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약 2,914억 달러 수준으로, 2024년 약 5,113억 달러, 2030년에는 약 9,745억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자료 : 화학·바이오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2022.06) 재인용

[그림 2]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에 필요한 바이오 소부장 예시

- 주요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소부장의 시장 규모는 2019년 약 103억 달러를 형성한 이후 연평균 10%의 성장률을 보여 2024년에는 186억 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바이오의약품 제품생산 전반을 포함할 경우의 시장 규모는 2024년 약 271.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기대(IBK투자증권, 2024.03)
 - 바이오의약품 소부장은 제품생산 공정 단계에 따라 다양한 품목들로 세분화되어 있어 정확한 시장 규모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하며, 상위 5개 글로벌기업⁴⁾이 전체 시장의 약 75% 이상을 점유한 과점적 구조
 - 주요 핵심시장을 기준으로 바이오의약품 소부장의 글로벌 시장 규모를 파악하면 2023년 약 164억 달러 수준으로, 2019년부터 연평균 10% 성장하여 2024년에는 186억 달러를 달성할 전망
 - 바이오의약품 제품생산 전반에 사용되는 글로벌 소재·부품·장비 시장 규모는 2024년 271.6억 달러, 2032년에는 약 790억 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

[표 1] 주요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글로벌 시장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CAGR
단백질 분리 정제	59	64	69	75	81	88	8.30
생산 품질 분석 시스템	9	9	10	10	10	11	4.00
크로마토그래피	160	187	218	253	295	344	16.50
바이오리액터	2,971	3,542	4,223	5,035	6,003	7,158	19.23
미생물 배양 시약/배지	4,371	4,682	5,024	5,421	5,849	6,311	7.90
Single-use system	2,764	3,070	3,409	3,788	4,208	4,674	11.30
총합계	10,334	11,554	12,953	14,582	16,447	18,586	10.00

* 자료 : IBK투자증권(2024.03)

4) Merck Group(미국), Cytiva(미국), Danaher corporation(미국), Sartorius AG(독일), Thermo Fisher Scientific Inc.(미국) 등(KDB산업은행 2023.05).

○ (미국) 바이든 정부는 '22년 9월 「국가 생명공학 및 생물제조 이니셔티브」 및 '23년 「미국 생명공학 및 바이오제조 발전 목표 및 우선순위」를 통해 미국 내 바이오의약 산업을 포함한 바이오제조 공급망 강화를 독려⁵⁾

- 「국가 생명공학 및 생물제조 이니셔티브」에서는 미국 내 바이오제조 역량 및 공급망 강화를 목표로 △미국 전역의 바이오제조 인프라 구축·활성화 △바이오제조 관련 해외 공급망의 자국화 △바이오제조 숙련인력 양성 △미국 바이오기술 생태계 보호 등을 추진
- 또한 이니셔티브 개시에 맞춰 추가적인 행정명령을 통해 바이오제조 역량 강화를 촉진하기 위한 각 부처별 전략을 시행하고, 바이오제조 발전 목표를 제시하여 미국 내 바이오의약 공급망의 자국화를 추진⁶⁾
- 행정명령에 따라 각 부처에서는 △핵심초기물질의 바이오제조 역할 확대(복지부) △바이오제조 인프라 구축을 위해 5년간 10억 달러 투자(국방부) △바이오제조 상업화 지원(BioFabUSA, BioMADE, NIIMBL) △미국 전역의 바이오제조 프로그램 투자(NSF) 등을 추진
- 바이오제조 발전 목표는 크게 ①기후변화 해결 ②식품 및 농업 혁명 ③공급망 탄력성 ④인간 건강 ⑤응용 발전의 5가지로 구분되며, 특히 공급망 탄력성에 있어 바이오 제조의 혁신 및 국산화에 대한 목표를 제시

[표 2] 공급망 탄력성 관련 생명공학 및 바이오제조 발전 목표

분야	목표	주요 내용
(Theme 1) 경제안보 촉진을 위한 생명공학 및 바이오제조 기반 대체 공급망 경로	1.1. 주요 의약품 공급망 개선	• 광범위한 합성생물학 및 바이오제조 역량을 활용하여 5년 내 저분자 의약품 성분의 최소 25% 생산
	1.2. 지속가능한 화학 생산	• 지속가능하고 비용효율적인 바이오제조 경로를 통해 20년 내 미국 화학 수요의 최소 30% 생산
	1.3. 바이오제조 제품 개발 가속화	• 신규 생명공학기술을 바이오제조 공정에 적용함으로써 20년 내에 공급망 병목현상이 확인된 최소 3개 분야에서 각 분야당 10개의 신규 바이오제조 제품생산
(Theme 2) 공급망 탄력성 강화를 위한 바이오제조 혁신	2.1. 예측 능력	• 5년 내 공급망 약화 분야의 최소 50% 및 병목현상 해결을 위한 실시간 바이오제조 방향 예측 시행
	2.2. 실시간 바이오제조 공정 조정	• 5년 내 실시간으로 바이오제조 변수를 측정하고 조정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
	2.3. 적응형 공급망	• 20년 내 공급망 병목현상 발생 시 1주일 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고급 바이오제조 플랫폼 및 기능 보급
	2.4. 공급망 유연성	• 20년 내 국내 생산 능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바이오제조 기술의 80% 구현
(Theme 3) 생명공학 및 바이오제조 상업화·무역 지원을 위한 표준 및 데이터 인프라	3.1. 데이터 인프라	• 5년 내 데이터 표준, 도구 및 기능 통합 및 발전을 통한 효과적이고 안전한 데이터 공유 메커니즘을 포함한 데이터 기반 구축
	3.2. 표준 인프라	• 20년 내 바이오제조 제품 및 프로세스의 신속 개발·배포가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표준 인프라 구축

* 자료 : The White House(2023.03) 참고 및 재구성

5) National Biotechnology and Biomanufacturing Initiative 및 New Bold Goals and Priorities to Advance American Biotechnology and Biomanufacturing.

6) Executive Order on Advancing Biotechnology and Biomanufacturing Innovation for a Sustainable, Safe, and Secure American Bioeconomy(지속가능하고 안전하며 안심할 수 있는 미국 바이오경제를 위한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 혁신에 관한 행정명령) 및 New Bold Goals and Priorities to Advance American Biotechnology and Biomanufacturing(미국 생명공학 및 바이오제조 발전을 위한 목표 및 우선순위).

- **(중국)**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전 세계의 바이오산업 발전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22년 5월 2025년까지 관련 기술 및 산업 발전을 가속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14차 5개년 바이오 경제 발전 계획'을 발표
 - 동 계획에 따라 중국 정부는 △혁신주도 △체계적 발전 △상생협력 △국민행복 증진 △리스크관리 등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25년까지 바이오 기술·산업 발전을 가속화하고 바이오 안보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
 - '22년 12월 중국 상무부 및 과학기술부는 「대외무역법」, 「기술수출입관리규정」 등의 기술 수출 금지·제한 목록을 발표하며, △세포 복제 및 유전자 편집 기술 △균주 생산기술 △생·화학의약품 제조기술 등을 포함하여 바이오 관련 기술 안보에 대해 법제화

[표 3] 중국 '제14차 5개년 바이오 경제 발전 계획' 중점 임무

중점 임무	주요 내용
바이오 경제 혁신 역량 제고	• 원천기술, 선도적인 기초연구 강화 - 첨단분야에서 국가 중대과학기술 프로젝트 및 중점연구개발계획 실시
	• 핵심기술 난관 해결 및 혁신사슬의 전체 효율 제고
	• 첨단 바이오 기술혁신 전개 - 고통량 유전자 시퀀싱 기술, 합성생물학 기술, 바이오제조공정계산설계, 유전자치료, 면역세포 치료, DNA 저장 등
경제력 있는 혁신 주체 육성	• 기업의 혁신 주체로서의 지위 강화 - 대기업-중소기업 융합혁신 촉진, 혁신 연합체 중심의 플랫폼 구축 등
	• 새로운 혁신역량 발전 - 첨단분야 생산 연합체 구축 지원, 바이오산업 시범검증 전개 등
바이오 경제 혁신발전의 클러스터화	• 바이오 경제 혁신발전 거점 신설 - 징진지/장강삼각주/웨강아오대만구의 혁신자원 발전 유도 - 베이징/상하이/장쑤/광둥/청위쌍성 경제권 등의 바이오 산업혁신 거점 형성
	• 바이오산업의 클러스터 경쟁력 향상
바이오 경제 혁신 협력을 심화	• 바이오 연구기관들의 국제대과학계획 주도적 개시, 바이오 분야 국제 규범 및 표준제정에 참여 권장

* 자료 : 산업연구원(2022.06) 참고 및 재구성

- **(EU)** 유럽연합(EU)은 2021년 11월 「핵심 원자재에 대한 유럽의 전략⁷⁾」에서 유럽연합 내 공급망을 강화하는 전략을 채택한 이후 EU 내 의약 관련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의약 관련 해외의존도 경감을 목표로 하는 「핵심의약품법(Critical Medicines Act)」 제정을 논의 중
 - EU는 그간 바이오산업 관련 자율성을 중시하였으나 코로나19 시기 및 지정학적 분쟁 등에 따른 원·부자재 수급 문제 발생으로 인해 의약품 등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유럽연합 내 공급망 강화전략을 채택
 - 2021년 11월 채택된 「유럽 제약 전략⁸⁾」에 △유럽 내 제조 공급망 구축 △제약산업 혁신 촉진 및 경쟁력 강화 △산업 R&D 촉진 및 생태계 육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의약 산업 관련 유럽연합 내 공급망 강화를 독려

7) 十四五”生物经济发展规划. △바이오의약 △제조 △에너지 △환경보호 △기술서비스 등을 포함.

8) A European strategy for critical raw materials –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24 November 2021 on a European strategy for critical raw materials (2021/2011(INI)).

9) A Pharmaceutical Strategy for Europe –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24 November 2021 on a pharmaceutical strategy for Europe(2021/ 2013(INI)).

- 2023년 들어 EU는 필수약품의 생산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내 원료약품(API) 및 완제품 생산을 적극 지원하여 의약 제품생산 관련 해외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핵심약품법」의 재정을 논의 중
- 또한 2024년 3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자연과 함께 미래를 구축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 EU에서의 생명공학 및 바이오제조 촉진¹⁰⁾」을 통해 EU 내 생명공학 및 바이오제조를 촉진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
 - 동 계획은 ①규제 간소화 및 시장 접근성 향상 ②산업 성장 및 확장 지원 ③AI 활용 지원 ④공공 및 민간투자 촉진 ⑤유럽 표준 작성 및 업데이트 ⑥국내외 협력 지원 등을 주요 추진 활동을 통해 유망분야인 생명공학 및 바이오제조 산업의 지속적이고 친환경적인 발전을 지원

○ 국내에서는 2020년 ‘바이오 소부장 연대협력 협의체’를 발족하며 바이오 소부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23년 발표한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3~’27)」, 「바이오 경제 2.0 추진 방향」을 통해 바이오의약 소부장(원·부자재)의 국산화 지원을 강화

- 산업통상자원부는 ‘20년 9월 바이오 소부장 수요기업 13개社 및 공급기업 42개社가 참여한 ‘바이오 소부장 연대협력 협의체’를 발족하여 수요-공급기업의 협력 계기를 확보하고, 2024년까지 약 849억 원을 투입하여 필터·배지 등 바이오 소부장 기술개발을 지원
 - 연대협력 협의체는 바이오 소부장 국산화 성과를 점검하고 신규 지원 품목을 발굴하는 등 꾸준한 활동을 지속¹¹⁾하고 있으며, △일회용 세포배양백 생산·납품(이셀, ‘21년) △국내 최초 세포배양 배지 생산공장 설립(아미코젠, ‘22년) △마이크로플라즈마 진단도구 개발(셀세이프, ‘22년) 등 협력 성과가 가시화
-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는 바이오의약품 소부장의 국산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3~’27)」을 발표하였으며, 산자부에서는 7월 「바이오 경제 2.0 추진 방향」을 통해 바이오 소부장 기술로드맵 수립 및 특화단지 지정 추진 계획을 발표
 - 종합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백신 원·부자재 성능평가 비용지원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장비 국산화 △국산 소부장 활용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하며, ‘바이오 소부장 연대협력 협의체’의 참여기관 확대 및 기능 강화를 통해 협력 품목 다변화와 기술 단계별 지원을 수행할 예정
 - 산자부는 세계 1위 바이오의약품 제조국 도약을 목표로 △바이오 소부장(원·부자재) R&D 기술 로드맵 수립 △전략적 외국인 투자 유치 △바이오 소부장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을 통해 현재 5% 수준인 바이오 원·부자재 국산화율을 ‘27년 10%, ‘30년 15% 수준까지 제고할 계획¹²⁾
- 이외에도 정부는 ‘23년 7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통해 충북 오송에 바이오 및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24년 1월 바이오 원·부자재 제조경쟁력 강화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24년 바이오·디지털헬스 연구개발(R&D)’에 총 2,66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 바이오 소부장 국산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수행¹³⁾

10) EC(2024.03), Building the future with nature: Boosting Biotechnology and Biomanufacturing in the EU.

11) 2021년 6월, 2022년 5월, 2023년 4월, 2023년 12월 등.

12) 산자부는 2023년 12월 바이오소부장 글로벌 공급망 간담회에서 ‘바이오 소부장 기술개발 로드맵(안)’을 공유하였음. 또한 2023년 12월 27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접수된 특화단지 육성계획서를 평가하여 2024년 상반기 내 바이오분야 특화단지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

13) 동 연구개발 사업 중 바이오 원·부자재 제조경쟁력 강화에는 △수요맞춤형 핵심 원·부자재 자립화(26.5억 원) △글로벌 진출형

- 인천시 송도는 단일 도시 기준 세계 최대 바이오의약 생산 지역으로, 수출에도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어 국내·외 주요 바이오의약 생산 및 소부장 기업의 투자 및 입주가 진행 중
 - 인천 송도는 삼성바이오로직스(CDMO/바이오시밀러), 셀트리온(CMO/바이오시밀러), SK바이오사이언스(CDMO), 롯데바이오로직스(CDMO), 마크로젠(Macrogen, 유전체분석), 아미코젠(배지) 사토리우스(Sartorius, 일회용백), 싸이티바(Cytiva, 필터레이션) 등 기업이 생산시설을 건립·운영하고 있어, 바이오의약 소부장 가치사슬이 점차 확장
 - 인천시는 국내·외 바이오 기업이 클러스터화되어 있어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존재하며, 공항 및 항만을 통한 국내외 교통이 편리하고 WHO 글로벌 바이오 메인캠퍼스 등 인력양성을 위한 요건이 갖춰져 있어 바이오의약 소부장의 성장을 위한 기반이 마련
- 인천시의 바이오의약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바이오의약 소부장에 대한 ①제품 성능평가·실증 등 R&D 지원 ②지역 주도의 제품 수요처 발굴 및 연계 강화 ③제품 인허가 관련 신속 행정·재정 지원 등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이 필요
 - 인천시는 △바이오기업 및 유관기관 협약('19) △인천 바이오 원부자재 국산화 지원사업('21)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상용화 지원사업('22~'25)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추진('24)¹⁴⁾ △남동구 바이오 및 소부장 시제품제작 지원사업('24) 등 중앙정부 및 자체 사업을 통해 국산 바이오 원·부자재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 중
 - 바이오의약 소부장의 경우 국산화를 위한 제품 개발에 대규모 시간·비용이 소요되고 관련 시장의 과점체제와 의약 허가 등록 사항 변경의 번거로움 등으로 신규 기업의 수요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단발성 지원이 아닌 지자체 차원의 중장기적인 사업전략에 기반한 투자 및 지원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
 - 바이오의약 소부장의 기술개발, 실증, 성능평가 등 전 주기적 R&D 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바이오의약 소부장 국산 기술개발을 지원하여야 하며, 기술을 가진 소부장 기업이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제품 수요처 발굴하고 공급-수요기업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이 요구
 - R&D를 통해 개발된 소부장 제품에 대한 성능 인증 및 인허가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추진하고, 기술 국산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이오의약 소부장 기업에 일정 기간 동안 세제 혜택을 제공하거나 산학연계를 통한 관련 분야 전문인력을 공급함으로써 소부장 기업의 성장 발판 마련이 필요
 - 또한 이러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사업이 단기적으로 수행·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종합계획 및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

원·부자재 제조 및 검증(28.5억 원) 등이 포함.

14) 송도의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및 생산·인력양성, 남동산단의 바이오 원·부자재 및 소부장 육성, 영종도의 부지확장 및 수출입 관로 등 3개 거점을 잇는 '바이오 트라이앵글' 전략을 앞세워 정부의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도전.

서비스 > 서비스산업 시장 동향¹⁵⁾



#서비스업 생산 #소매판매액

- **(서비스생산)** 2023년 4분기 전반적인 서비스업 생산 경기는 전국과 인천 모두 개선세를 보이는 가운데, 교육서비스업 등 일부 부문에서 생산 경기가 둔화
 - **(전국)** 4분기 전국 서비스업생산지수는 전기대비 4.0%, 전년동기대비 1.1% 증가한 119.2 수준으로, 지난 2022년 2분기 이후 완만한 개선세를 유지
 - 인천(4.0%), 광주(2.9%), 대전(2.5%) 등은 보건·사회복지업,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의 상대적인 호조로 생산이 증가했으나, 제주(-3.8%), 충북(-2.2%), 강원(-1.8%)은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도·소매업, 금융·보험업 등의 부진으로 생산이 감소
 - 서비스업 13개 업종 대부분의 생산지수가 100 이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의 생산 부진이 4분기째 지속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운수 및 창고업(7.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4.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3.1%) 순이며, △숙박 및 음식점업(-3.7%)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3.6%) △도·소매업(-2.9%)은 3분기 연속 전년동기대비 감소
 - **(인천)** 인천의 4분기 서비스업생산지수는 전기대비 0.2%, 전년동기대비 4.0% 증가한 121.2 수준으로 서비스업 생산 증가세가 지속
 - 13개 서비스 업종 중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 숙박 및 음식점업을 포함한 7개 업종에서 전년동기대비 생산이 감소했으나, 운수 및 창고업의 높은 생산 증가세를 기반으로 전반적인 경기는 개선
 - 인천의 서비스업 생산은 △운수·창고업(30.5%)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7.8%)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6.3%) 등이 전년동기대비 크게 증가한 반면,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재료 재생업(-14.9%) △숙박·음식점업(-10.9%)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8.4%) 등은 감소
 - 운수 및 창고업의 생산지수 증가가 지속되는 반면,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정보통신업 △교육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등은 세 분기 연속 생산지수가 전년동기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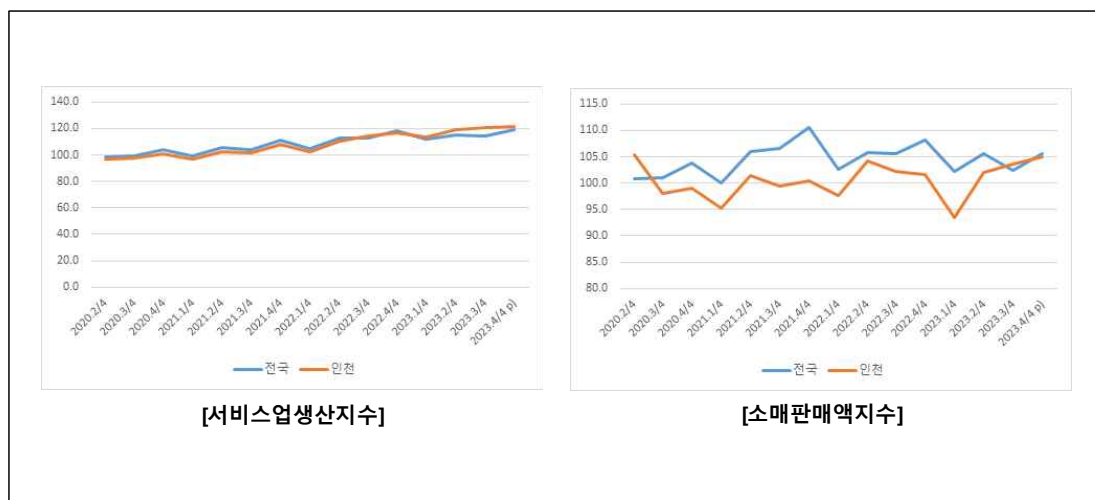
15) 통계청(2024.02), '2023년 4/4분기 및 연간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 참고.

[표 1] 서비스업 주요 부문 생산지수

지역	항목	'23.2/4	'23.3/4	'23.4/4 (p)	'22.4/4	전기비	전년 동기비
전국	도매·소매업	106.8	104.4	107.0	110.2	2.5%	-2.9%
	운수·창고업	134.3	139.8	141.5	131.8	1.2%	7.4%
	숙박·음식점업	120.7	120.9	121.3	135.9	0.3%	-3.7%
	금융·보험업	123.9	123.4	123.5	122.5	0.1%	0.8%
	예술·스포츠·여가 관련업	187.7	181.7	186.1	182.5	2.4%	2.0%
인천	도매·소매업	109.3	109.7	111.4	108.3	1.5%	2.9%
	운수·창고업	166.3	178.7	179.5	137.5	0.4%	30.5%
	숙박·음식점업	109.6	108.4	106.8	119.8	-1.5%	-10.9%
	금융·보험업	113.9	112.8	114.0	116.5	1.1%	-2.1%
	예술·스포츠·여가 관련업	192.2	363.1	239.3	222.0	-34.1%	7.8%

*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업동향조사-서비스업생산지수(2020=100.0)' 참고 및 재구성

* 주1 : 최근 분기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전기 및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은 비율(%)로 표기
2 : 각 자료는 산업별, 시도별 서비스업생산지수 중 불변지수를 사용하였으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업동향조사-서비스업생산지수(2020=100.0) 및 소매판매액지수(2020=100.0)' 자료 참고 및 재구성

* 주 : 소매판매액지수의 전국자료는 '재별 및 상품군별 소매판매액지수'의 불변지수를 사용

[그림 1] 서비스산업 동향 추이(2023년 4분기)

- **(소매판매)** 2023년 4분기 전국 소매판매액지수는 3%대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가계 소비가 위축된 영향으로 약보합세를 보이는 반면, 인천은 2023년 3분기 및 4분기 연속 개선
- **(전국)** 전국의 소매판매액지수는 전기대비 2.9% 증가, 전년동기대비 2.4% 감소한 105.5로, 7분기 연속 전년동기비 감소하며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는 추세
 - 2023년 4분기 전국 소매판매액지수는 17개 시도 중 6개 지역에서 전년동기대비 증가했으나, 11개 지역에서 전년동기대비 감소
 - 지역별로는 전문소매점, 슈퍼·잡화점, 편의점 등의 판매 감소로 △전남(-7.3%) △제주(-6.4%) △경남(-5.9%) △경기(-5.7%) 등의 소매판매액지수가 전년동기비 감소했으며, △대전(4.7%) △부산(3.5%) △인천(3.2%)은 승용차·연료소매점, 전문소매점 등의 판매 증가로 전년동기비 소폭 증가
 - **(인천)** 3분기 인천의 소매판매액지수는 전기대비 1.4%, 전년동기대비 3.2% 증가한 105.0으로, 2분기 연속 전년동기비 증가
 - 슈퍼·잡화점·편의점의 판매가 감소했으나 면세점 및 대형마트의 판매 지수가 각각 전년동기대비 80.5%, 15.1% 증가하며 전반적인 소매판매가 개선

[표 2] 전국 및 인천 업종별 소매판매액지수

지역	항목	'23.2/4	'23.3/4	'23.4/4 (p)	'22.4/4	전기비	전년 동기비
전국	백화점	140.0	126.4	145.6	138.7	15.2%	5.0%
	대형마트	91.5	102.5	94.8	92.0	-7.5%	3.0%
	면세점	77.5	77.9	85.5	107.1	9.8%	-20.2%
	슈퍼마켓 및 잡화점	89.5	91.7	83.0	85.1	-9.5%	-2.5%
	편의점	107.4	110.3	102.3	109.5	-7.3%	-6.6%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	108.7	103.2	110.7	110.4	7.3%	0.3%
	전문소매점	104.9	97.4	99.2	103.9	1.8%	-4.5%
	무점포소매	111.5	111.1	119.6	115.9	7.7%	3.2%
인천	대형마트	95.9	106.9	99.3	86.3	-7.1%	15.1%
	면세점	214.7	234.0	243.3	134.8	4.0%	80.5%
	슈퍼마켓/잡화점/편의점	88.8	91.5	82.6	95.2	-9.7%	-13.2%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	105.6	101.9	104.6	99.2	2.6%	5.4%
	전문소매점	95.6	99.5	105.2	105.3	5.7%	-0.1%

*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업동향조사-소매판매액지수(2020=100.0)' 참고 및 재구성

* 주1 : 최근 분기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2 : 각 자료는 시도별, 소매업태별 판매액지수 중 불변지수를 사용

[부록] 주요 산업 수출입지표(2024.02 잠정)

(단위 : 십만\$, %)

	전국					인천				
	수입		수출		수지	수입		수출		수지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반도체	88,817	-8.5	152,735	29.6	63,918	14,783	33.2	15,180	31.2	397
자동차	14,778	-17.8	69,445	-6.4	54,667	1,006	-32.0	6,213	-2.8	5,206
기계장비	49,577	-0.1	61,941	10.6	12,363	4,607	44.1	5,087	7.7	480
바이오-의약	7,177	-15.7	5,979	29.0	-1,198	685	-13.4	4,225	44.5	3,541
바이오-화장품	1,549	-11.9	6,998	10.6	5,449	28	26.4	1,453	15.6	1,426

* 자료 : K-stat 무역통계 '품목별, 지역별 수출입 통계' 참고 및 재구성

* 주1 : 각 산업의 통계 원자료 참고 시 품목명은 순서대로 △전자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HS85)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 부속품(HS87)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HS84) △의료용품(HS30) △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와 화장품, 화장용품(HS33) 등

2 : 각 지표의 증감은 전년동월대비 비율로 표기

산업

해외 진출 소상공인 돕는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접수 시작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부는 '2024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글로벌 유형)'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4월 12일까지 모집하고, 공고를 통해 선발된 팀에 대해 최대 1억 원에 달하는 사업화 자금을 지원할 계획
-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창작자·창업기업(스타트업)·타업종 소상공인 등 파트너 기업과의 협업으로 소상공인만의 특화 제품·서비스를 개발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
 - 동 사업의 글로벌 유형은 해외 시장 진출 역량을 보유한 소상공인의 해외 진출 및 현지화를 돕기 위해 제품 라인업 확대 및 구체화, 브랜딩·디자인, 해외 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금번 참여기업 모집공고는 3월 12일부터 한 달간 진행되며,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세한 사항은 소상공인24 홈페이지(www.sbiz24.kr)를 통해 확인 가능
 - 공고 이후 팀빌딩 프로그램 및 1차 심사를 통과한 약 30개 팀에 대해 사업모델 고도화 자금을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최종심사를 통과한 10개 팀에 대해서는 최대 4천만 원의 스케일업 자금을 추가 지원
 - 뿐만 아니라 사업 참여기업은 지원사업 주관기관의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한 보육공간, 글로벌 역량진단, 글로벌 팝업스토어 등 직·간접 투자 및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

산업

'소규모 어가 직불금',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민생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 직접지불금' 관련 일정을 앞당겨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받아 지급할 계획
-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가 「수산직불제법 시행령」에서 정한 어업경영 규모에 해당하는 영세 어가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2023년 처음 시행
 - 해수부는 신청요건 확인 절차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당초 6월 이후 신청받을 계획이었던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신청 일정을 앞당기기로 결정
-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4월까지 지방해양수산청을 통해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하며, 어업경영체 신청부터 등록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될 수 있어 사전에 준비할 필요
- 직불금은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어가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어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신청에 관한 상세 설명은 수산정보포털(www.fips.go.kr)을 통해 확인 가능

#금융위원회

- 3월 18일부터 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이 개편됨에 따라, 더 많은 소상공인이 저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을 예정
 - 금번 개편에 따라 대환대출 프로그램은 △최초 취급시점 요건 △최대 대출금리 △보증료 등의 부분에서 혜택이 강화되며, 현재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차주에게도 소급적용될 예정
 - 다만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따라 이자환급 대상에 포함된 2023년 12월 20일 이전 개인사업자의 대환대출은 소급 적용의 대상에서 제외
 -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개인사업자 등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저금리로.kr)를 통해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 차주는 올해 말까지 전국 15개 은행*을 통해 신청 및 상담이 가능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SC, 토스

구분	기 존	변 경
최초 취급시점	2022년 5월 31일 이전	2023년 5월 31일 이전 (1년 확대)
1년간 대출금리 (상한)	5.5%	5.0% (1년차 5.0%, 2년차 5.5%, 3~10년차 1년물 은행채AAA+가산금리 2.0%p 이내)
1년간 보증료 (상한)	0.7%	면제 (1년차 0%, 2~3년차 0.7%, 4~10년차 1.0%)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글로벌 축제' 공모를 통해 △인천 펜타포트 음악축제 △수원 화성문화제 △화천 산천어축제 등 3개 축제를 글로벌 축제로 선정하고, 향후 3년간 이들 축제의 글로벌화를 위해 전폭적 지원을 수행할 계획
 - 글로벌 축제 육성 지원사업은 잠재력이 있는 문화관광축제를 공모·선정하여 해당 축제가 세계인이 찾는 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금번 공모에 신청한 30개 지역축제 중 서면평가, 해외인지도 조사, 발표평가 등 3단계를 거쳐 공연예술형(인천 펜타포트 음악축제), 전통문화형(수원 화성문화제), 관광자원 특화형(화천 산천어축제) 등 3개 축제가 선정
 -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축제별 특징 및 교통 입지 등을 분석해 세계화를 위한 선결과제를 진단하여 맞춤형 전략 마련을 지원하고, 축제당 국비 총 6억 6천만 원을 지원하여 △교통·숙박 △다국어 안내 △세계 10대 축제와의 교류 △축제 연계 방한상품 수요 확보 △국제 홍보 등을 단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

#교육부

-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올해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COSS)」 사업의 신규 연합체 선정을 위해 3월 19일부터 4월 24일까지 신규 사업공모 접수를 시행
 - 동 사업은 인공지능, 이차전지 등 첨단분야별 수도권-지방대학 연합체를 구성하여 첨단분야에 관심 있는 대학생이 전공과 관계없이 다양한 융·복합 교과·비교과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지자체참여형' 5개 신규 연합체를 추가 선정하여 총 18개 연합체에 약 2천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
 - 교육부는 금번 공모를 통해 △그린바이오 △첨단소재·나노융합 △데이터보안·활용 융합 △차세대 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 등 5개 분야의 '지자체참여형' 연합체를 신규 선정하여 연합체 당 102억 원을 지원할 예정
 -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 분야와 관련된 비수도권 광역 지방자치단체 및 최대 5개 대학(수도권/비수도권 각 40% 이상)으로 구성된 연합체가 4년('24~'27)간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으며, 예비 신청 접수 이후 본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
 - 금번 사업의 공모 기간은 3월 19일부터 오는 4월 24일까지로, 사업 기간 및 신청 요건, 방법 등과 관련한 상세한 설명은 한국연구재단의 사업공모를 통해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

- 우리나라가 '동남아 지역 항공교통흐름관리 협력체(AMNAC)'에 정식으로 가입함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 국제노선 항공기 운항의 약 48% 이상을 차지하는 동남아 하늘길 이용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해질 전망
 - 항공교통흐름관리는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피크타임* 또는 태풍 등 기상 위험사전에 항공기의 출발, 도착 시작을 조정하는 방법
 - * 항공기 운항 수요가 가장 몰리는 시간대로, 동남아·미주·유럽 등 노선별로 상이
 - 국토부는 금번 협력체 가입을 통해 동남아행 항공편별로 최적화된 이륙시간을 당사국과 직접 조정할 수 있게 되며, 불필요한 지상대기 및 공중지연 시간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그간 국내의 동남아 항공편은 인접국이 정해 준 출발시간 간격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동일 시간대에 동남아로 출발하는 항공편의 대기시간 장기화로 인해 항공사와 여행객의 불편이 빈번히 발생
 - 국토부는 동남아 협력체 가입을 통해 기존의 중국 및 일본 노선 항공교통흐름관리 협력만 적용했을 때보다 31.1% 증가한 약 76.6% 이상의 국제선 항공편에 대해 흐름관리*를 확대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 흐름관리 가능 국가 운항편 비중 : 중국(23.1%), 일본(22.4%), AMNAC 회원국(31.1%)

#금융위원회·환경부

- 금융위원회는 민관합동으로 마련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통해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30년까지 총 42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과 함께 신규 펀드 조성 및 기후 기술 투자 시행계획을 발표
 - 금번 방안을 기반으로 정부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5대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2030년까지 총 420조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함과 동시에, 은행권 출자를 통해 총 9조 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를 신규 조성하여 재생에너지 설비 증설 관련 금융이 시장에서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
 - *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또한 유망 산업인 기후기술 분야에 시중은행이 출자하는 「기후기술펀드(3조 원)」 조성 및 혁신성장펀드(5조 원) 및 성장사다리펀드(1조 원) 등을 통해 약 9조 원 규모의 투자금을 마련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할 계획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민간금융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가칭)녹색여신 관리지침」 마련을 추진하여 민간의 녹색성 판단과 기후리스크 심포지엄을 통한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강화도 지원할 예정
 - 한편 환경부에서도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을 통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고도화 △녹색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 △민간 녹색투자 30조 원까지 확대(~'27)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등을 추진하여, 기업의 녹색 산업 분야 글로벌 시장 선점을 지원할 계획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유통채널의 온라인 전환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소담스퀘어' 신규 수행기관을 3월 20일부터 4월 18일까지 모집할 예정
 - '소담스퀘어'는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 및 제품 촬영이 가능한 촬영장(스튜디오), 상품기획사(MD) 상담 및 교육이 진행되는 교육장, 업무 관련 회의 및 모임을 위한 공유회의실 등을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하고, 소상공인의 홍보 콘텐츠 실습·제작부터 전자상거래 채널 입점까지를 종합 지원하는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을 의미
 - * 현재 서울(역삼, 상암, 당산), 부산, 대구, 전주, 강원(춘천), 광주 등에 총 8개 기관을 운영 중
 - 금번 신규 수행기관 모집은 현재 소담스퀘어가 미설치된 지역(인천, 경기, 대전, 제주 등)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1개소를 신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3월 20일부터 4월 18일까지 공모를 진행
 - 신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면 최대 10억 원을 지원받아 소상공인을 위한 기반시설 및 운영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하며, 사업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유통센터의 판단대로 누리집(fanfandaero.kr)을 통해 확인 가능

참고 자료

- 한국바이오산업정보서비스, www.kbiois.or.kr.
-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www.kobia.kr.
- 산업통상자원부, www.motie.go.kr.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인천광역시, www.incheon.go.kr.
-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바이오의약품 산업동향 보고서」, 2023.12.
- Statista, “Projected size of the biopharmaceuticals market worldwide from 2020 to 2030*”, 2022.02.
- 화학·바이오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 “바이오 소부장 인력양성 및 공급방안”, CHEM-BIO.net Issue Report, 2022.06.30.
-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국내·외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자국화 정책 동향」, 2023.05.
- IBK 투자증권, 「IBKS 소재/부품/장비 In-Depth : 숲을 보는 투자 바이오 소부장」, 2024.03.14.
-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 소부장 동향] 바이오의약품 생산용 필터」, 2021.12.
- The White House, “FACT SHEET: President Biden to Launch a National Biotechnology and Biomanufacturing Initiative”, 2022.09.12.
- The White House, “Executive Order on Advancing Biotechnology and Biomanufacturing Innovation for a Sustainable, Safe, and Secure American Bioeconomy”, 2022.09.12.
- The White House, “FACT SHEET: The United States Announces New Investments and Resources to Advance President Biden’s National Biotechnology and Biomanufacturing Initiative”, 2022.09.14.
- The White House, “FACT SHEET: Biden-Harris Administration Announces New Bold Goals and Priorities to Advance American Biotechnology and Biomanufacturing”, 2023.03.22.
- The White House, 「BOLD GOALS FOR U.S. BIOTECHNOLOGY AND BIOMANUFACTURING」, 2023.03.
- U.S. Department of Defense, “DoD Releases Biomanufacturing Strategy”, 2023.03.22.
- ESSC, “A Critical Medicines Act to secure Europe's pharmaceutical independence”, 2023.12.21.
- 산업연구원, 「글로벌 산업지형 변화에 대응한 전략산업 발전 방안」, 2022.12.
- European Parliament, “A Pharmaceutical Strategy for Europe”, 2021.11.
- 한국바이오협회, 「주목해야 할 2024년 바이오산업 해외 정책 변화」, 2024.01.02.
- 약업신문, “美 이어 ‘유럽’도 원료의약품 자급화 강조…‘핵심의약품법’ 제언”, 2023.05.04.
- EC,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 Building the future with nature: Boosting Biotechnology and Biomanufacturing in the EU」, 2024.03.

- EC, “Commission takes action to boost biotechnology and biomanufacturing in the EU”, 2024.03.20.
- 산업연구원, 「제14차 5개년 계획 기간 중국 바이오 경제의 발전 중점」, KIET 산업경제 해외산업이슈점검, 2022.05.25.
- 산업연구원, 「제14차 5개년 ‘바이오 경제 발전 계획」, 중국산업경제 브리프, 2022.06.
- 인천광역시, “바이오산업 원·부자재 국산화 본격 시동”, 2019.12.13.
- 한국경제, “[취재수첩] 밀어주는커녕...‘찬밥 신세’된 K바이오 소부장”, 2023.08.22.
- 이데일리, “아미코젠, 송도 배지 공장 5월 본격 가동 임박...수주 협의도 진행 중”, 2024.03.20.
- 인천일보, “[항동에서] 인천, 바이오 클러스터에 미래 걸러라”, 2024.02.28.
- 인천연구원, 「인천 미래 경제·산업 발전계획」, 2022.12.
- 통계청, “분기별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2023년 3/4분기)”, 2023.11.09.
-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업동향조사’.
- K-stat 무역통계, ‘국내 품목별 수출입 통계’ 및 ‘국내 지역별 수출입 통계’.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해외 진출 소상공인에 사업화 자금 최대 1억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2024.03.1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어업인 민생안정...‘소규모 어가 직불금’ 5월부터 신청”, 해양수산부, 2024.03.1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소상공인 대출 저금리로 갈아탄다...18일부터 대상·혜택 확대”, 금융위원회, 2024.03.1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산천어축제·펜타포트·화성문화제, ‘○○○축제’로 키운다”, 문화체육관광부, 2024.03.1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그린바이오 등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 5개 신규 선정”, 교육부, 2024.03.18.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동남아행 항공 대기·지연 줄인다...피크타임 등에 출·도착 사전 조정”, 국토교통부, 2024.03.18.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후위기 대응에 정부·민간 합심...2030년까지 정책금융 420조 투입”, 금융위원회, 2024.03.19.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소담스퀘어 1곳 추가 구축”, 중소벤처기업부, 2024.03.20.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4-6호(2024.03.29)

발 행 처 인천연구원
발 행 일 2024년 03월 29일
주 소 (22711)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전 화 032-260-2600
홈페이지 www.ii.re.kr

본 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인천연구원에 귀속되며, 원고의 무단전재, 복제,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